

1.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

[21학년도 수능] 메타윤리학은 도덕 문제 탐구에서 사회,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.

[21학년도 수능] 실천윤리학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3월] 규범윤리학은 윤리학이 선과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다.

[20년 수능] 규범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.

[19년 3월]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진술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.

[24년 7월] 규범윤리학은 가치판단을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함을 강조한다.

[23년 4월] 실천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[23년 3월] 메타윤리학은 실천윤리학과 달리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.

[23년 3월] 메타윤리학은 실천윤리학과 달리 도덕적 논의의 정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 분석을 강조한다.

[22년 10월] 규범윤리학은 기술윤리학이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이 문화 현상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한다고 본다.

[23년 10월] 규범윤리학은 기술윤리학이 특정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고 본다.

[22학년도 수능] 공자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본다.

[22학년도 수능] 노자는 도가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고 보며,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.

[22학년도 수능] 공자와 노자는 모두 인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본다.

[21년 4월] 불교는 자타불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.

[24년 3월] 장자는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,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고 본다.

[21년 10월] 장자는 다함이 없는 도를 체득하여 없음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10월] 장자는 지극한 사람의 마음 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일부러 보내지도 않고 일부러 맞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맹자는 인의예지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도가는 백성들이 꾀와 욕심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보며, 무의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.

[22학년도 9월] 도가는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된다고 본다.

[22학년도 9월] 불교는 인의를 통해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

[22학년도 6월] 공자는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본다.

[22학년도 6월] 공자는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,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.

[22학년도 6월] 노자는 나라는 작아야 하고, 백성은 적어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도가는 성인이 무위로써 일을 처리하고 만물을 자연에 맡긴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불교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는 법을 알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유교는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부터 서게 한다고 본다.

[23년 7월] 공자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라고 본다.

[20년 4월] 유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.

[21학년도 6월] 유교는 자신의 수양을 경으로써 하며,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고 본다.

[21학년도 6월] 도가는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,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고 보며, 후자를 통해 무위에 이를 것을 주장한다.

[21년 3월] 불교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생기므로 무명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본다.

[21년 3월] 도가는 옳음이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,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고 본다.

[23년 4월] 맹자는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인과 예로써 타고난 선한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.

[23년 4월] 노자는 사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도가는 자기중심적 고정 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불교와 도가는 모두 내세를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도가는 인을 실천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7월] 불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다고 본다.

[20년 7월] 불교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불변의 실체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,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라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불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불교는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도가와 불교 모두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.

[24학년도 수능] 유교는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수능] 불교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고 본다.

2. 생명과 윤리

[22학년도 9월]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옳은 행위라고 본다.

[22학년도 9월] 벤담은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.

[21학년도 수능] 덕윤리는 공리주의에,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

[21학년도 수능] 덕윤리는 공리주의가,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

[25학년도 수능] 칸트는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.

[21년 4월] 유교는 죽음으로써 선한 도를 사수해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4월] 유교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선비가 행해야 할 도리라고 본다.

[21년 4월] 도가와 유교는 모두 인의 실현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은 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본다.

[25학년도 6월] 도가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.

[25학년도 6월] 도가와 에피쿠로스 모두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본다.

[24년 7월]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 준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.

[24년 7월] 플라톤은 죽음이 영혼의 육체에서 분리되는 물리적 현상이라고 본다.

[24년 7월] 도가는 죽음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기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불교는 오온의 해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불교와 도가 모두 죽음의 두려움은 참된 진리의 자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.

[22년 10월] 플라톤은 불멸의 영혼은 죽음 이후 참된 실재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본다.

[22년 10월]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모두 죽음이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.

[22년 7월] 에피쿠로스는 현세의 도덕적인 삶은 내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준다고 본다.

[21년 3월] 플라톤은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으로 진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본다.

[21년 3월] 플라톤은 불멸하는 영혼이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.

[22년 3월] 유교는 도덕적 삶보다는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.

[22년 3월] 도가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.

[24년 10월] 플라톤은 철학자가 영혼과 육체의 불멸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.

[24년 10월] 플라톤은 인간이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.

[24년 10월] 플라톤은 참된 실재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도가는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도가와 불교 모두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얹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.

[19년 10월]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빠지는 것이라고 본다.

[22년 3월]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에리히 프롬은 참된 사랑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에리히 프롬은 참된 사랑이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계발되는 기술이라고 본다.

[22년 10월] 자유주의는 성관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.

[23년 10월] 보수주의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.

[23년 10월]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고 본다.

[18년 3월] 보부아르와 길리건 모두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은 양립불가능하다고 본다.

[21년 3월] 유교는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 효가 완성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유교는 형제가 상하 관계 속에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.

[18년 10월] 유교는 부부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천륜의 관계라고 본다.

[18년 10월] 유교는 부부를 상호 공경하면서도 분별이 요구되는 관계라고 본다.

[18년 10월] 유교는 부부와 형제자매 모두 권면과 신의에 힘써야 하는 관계라고 본다.